인문대 AI TF 독서 토론회 요약 정리

1. 발제 핵심 요약 (최승락 교수 발표 내용)

① 공통 전제 및 문제의식

- **강력한 AI (Powerful AI):**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지능을 갖춘 AI 수백만 개가 인간보다 10~100배 빠르게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, 즉 **'데이터센터 속 천재들의 나라'**로 정의된다.
- **스케일링 법칙:** 연산량 증가에 따라 AI 인지 능력이 지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전제한다.
- **저자의 위치 고려:** AI 개발·판매 기업 대표의 글이므로, 긍정적 전망 강조가 일종의 홍보나 선전으로 읽힐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.

② 「사랑스러운 은총의 기계들」(2024): 5~10년 내 긍정적 변화 전망

아모데이는 특이점 시나리오(즉각적 만능 해결)와 포화론(진보 한계론)이라는 양 극단을 모두 비판하며, 지능을 제약하는 5가지 현실적 병목(외부 세계의 속도, 데이터 부족, 내재적 복잡성, 인간의 제약, 물리 법칙)을 기준으로 5대 영역의 변화를 예측한다.

- **생물학·건강:** 50~100년 걸릴 의학 진보가 5~10년으로 압축('압축된 21세기')되어 암, 감염병, 알츠하이머 등의 예방과 치료, 수명 연장이 가능해진다.
- **신경과학·정신건강:** 우울증·조현병 등 정신 질환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한다. (단, '마음의 컴퓨터 업로드' 같은 SF적 상상은 시간 범위 밖으로 제외)
- **경제 개발·빈곤:** 최빈국 보건·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으나 부패·제도적 제약 및 기술 거부('옵트아웃')가 변수다.
- **평화와 거버넌스:** AI가 자동으로 민주주의 편이 되지 않으므로, 민주주의 국가 연합('앙탕트')을 통한 공급망·자원 통제 및 시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.
- **노동과 의미:** AI가 일을 대체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삶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낙관하나, 경제적 분배 구조 붕괴와 기본소득의 한계는 우려한다.

③ 「AI의 지수적 발전과 정책」(2026): 기술과 제도의 불일치 해소

AI 모델은 4년 만에 코딩 초보에서 기업 코드 대부분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으나, 정치·입법 제도는 *반지의 제왕* 속 느린 나무('트리비어드')처럼 뒤처져 있다. 이미 자율적 해킹(*Claude Mythos Preview* 사례 등) 같은 국가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었기에 5대 정책 재설계를 제안한다.

1. **규제와 공공안전:** 단순 투명성 권고를 넘어 자동차·항공기 수준의 구속력 있는 규제 및 출시 전 제3자 의무 시험 도입 (사이버보안, 생물무기, 통제 상실, 자동화된 R&D 영역)
2. **거시경제와 조세정책:** 초고속 성장 속 대규모 인지 노동 대체에 대비해 노동 대체 추적, 고용 유지 세제, 기업·자본 이득세 기반 장기 소득 지원(기본소득) 마련
3. **생명의학 승인 제도 개혁:** 기존 7~8년 걸리는 신약 승인 절차가 AI 혁신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AI 기반 독성 예측·합성대조군 등을 인정하는 유연한 신속 승인 제도 도입
4. **국가와 시민적 자유:** 완전자율무기 국내 사용 금지, 민간 데이터 구매를 통한 대중 감시 차단, 정부에 맞서는 개인·조직에게 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AI 접근권 보장
5. **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:** 첨단 반도체 및 제조장비(SME)를 동맹국 간 공유하고 적대국에 통제하여, AI 기반 영구 독재 체제 출현을 막고 민주주의 진영의 우위 확보

④ 발표자의 비판적 논점 (최승락 교수 의견)

- **언행 불일치와 '기술 마비(Technoparalysis)':** 아모데이는 2026년 9월 12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, 열흘 뒤 *Claude Opus 5.5*, 두 달 뒤 *Fable 5.2 / Mythos 5.2*를 연달아 출시했다. 이는 위험을 알면서도 시장 경쟁 때문에 개발을 멈추지 못하는 **'기술 마비'** 상태이며, 개발 속도에 대해 시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논하는 모순을 보여준다.
- **노동과 삶의 의미 분리 비판:**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통로다. 기본소득이나 취미 활동(예: 올림픽 1등이 아니어도 달리기를 즐기는 것)만으로 일자리 상실의 실존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시각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다.
- **제도의 우선순위 문제:** 아모데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효용 창출(예: 의약품 신속 승인)을 강조하나,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 가속보다 **위험 방지와 통제 중심의 제도 설계**가 훨씬 시급하다.

2. 주요 토론 및 발언 요약 (발언별 정리 기반)

- **양태근 교수 (진행 및 종합 논평)**
  - **현실적 파급력 환기:** 앤트로픽의 상장 임박(기업가치 1~2조 달러 전망)을 언급하며, 이번 텍스트가 그동안 TF에서 다룬 책들의 흐름을 총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.
  - **토론 의제 제시:** 인문대 교수진 역시 클로드(Claude) 등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, 아모데이의 전망을 접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우려와 전망을 갖게 되었는지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끌었다.
- **최승락 교수 (발제 및 보충 발언)**
  - **AI 기술 체감 및 위험성:** 최근 모델(*Opus 5.5* 등)의 성능을 체감할 때, 과거 2~3일 걸리던 발표 자료 준비가 당일 아침에 가능할 만큼 AI 활용 격차에 따른 역량·빈부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. 또한 자율 해킹 사례와 피터 틸·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권력자들의 반민주적 행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  - **AI 활용 팁 공유:** 발표 자료 제작 과정에서 영상·음성 파일을 AI에 입력해 요약을 추출한 제작 방식(클로드 및 영상 변환 활용법)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기술 활용의 실제를 보여주었다.

3. 종합 의의

이번 독서 토론회는 빅테크 CEO가 제시한 장밋빛 기술 비전과 정책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, **① 기업가의 이해관계와 '기술 마비'의 모순**, **② 기술 발전 속도와 민주적 통제 간의 간극**, **③ AI 시대에 인간 노동이 지니는 사회적·실존적 가치**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짚어낸 자리였다.